

RaonAtti 4<sup>th</sup> Thailand

# 11월 보고서



태국현지에서 나무 타는 재주를 발견한 김우겸 단원과 함께



# 11월 전체일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	---	---	---	---	---	---



1  
10월보고서  
PPT  
태권무

2  
D-1  
홈스테이  
시작 하루전날

홈스테이  
시작 :)  
In 짬짜이마을

4  
-자전거타고  
학교가기  
-아이들과 노래  
부르고 놀기  
-코리아룸청소

5  
아짬수피집



7  
아짬수피집  
대청소  
환경캠페인  
동영상편집  
영문보고서  
작성

8  
-동요부르기  
-컴퓨터수업  
보조

9  
1학년~  
3학년  
하루종일  
체육수업  
(남자단원)

10  
'매캉학교'  
-여자단원 다른  
학교 행사 참여  
  
-남자단원 학교  
에서 체육수업

11  
'매캉학교'  
다같이 방문  
**짬캠핑**  
**YMCA**  
**컴백**

12  
함당 대학교  
아시아의 좋은 친구들  
RoomAtti

13  
Day off

14  
Day off



16  
-학교  
-킷아트가서  
러이그라통  
그리그리기

17  
크루야이  
집방문  
-저녁먹고  
콤러이

18  
-학교에서  
진행된회의 참관  
비디오/사진촬영

19  
그라통  
만들기  
P'Yo와  
함께 환경  
프로젝트  
미팅



21  
러이  
그라통

22  
-체육수업  
-내일 경진  
대회 자료  
준비

23  
'매캉학교'방문  
-학생들 경진  
대회 비디오  
촬영 및 응원  
-김우겸 단원  
엄마 생일파티

24  
3학년수업  
'비행기'  
노래&종이접기  
-그림그리기  
2학년수업  
-그림그리기

25  
아이들과  
태국 놀이 하기  
  
드디어 오늘  
**태권도/**  
**합창단** 결성

26  
4학년수업  
-체육수업  
-한국어  
-한복그리기

27  
점심으로  
조준희단원  
엄마가 해주신  
국수 먹고  
학교로 가서  
11월 보고서 회의

28  
한국방에서  
보고서 작성  
보고서 1면  
지면사진  
촬영한날

29  
Cleaning  
day 준비  
  
방과후  
합창단/  
태권도 연습

30  
**Big  
Cleaning  
day**





# JIRATIWAT 학교



매일 아침이면 이곳에서 조희를 한다.  
평소에는 체육수업, 배구연습,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 노는 공간이다.

## 학교소개

싼캠핑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싼싸이'마을의 JIRATIWAT 학교. 초등학교 1학년부터~중학교 3학년까지 전교생이 170여명에 선생님이 13명인 시골 학교이다. JIRATIWAT 학교는 여러 곳 (존슨 & 존슨, 로타리클럽, Give 2 Asia 등등) 에서 지원을 받아서 교복, 체육복, 급식, 학용품 (공책, 볼펜) 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



점심시간에는 선생님들 식당으로 변신



초등학교 1학년~3학년  
아이들이 있는 곳



## [1] 수업

## 우리들의 활동

학교에 온 지 한 달 정도 지났지만, 아직까지 정기적인 수업을 하지는 않고 있다. 대신 선생님들의 부탁이 있으면 그 때, 그 때 즉흥적으로 수업을 하는데,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수업을 진행한다. 주로 여자단원들은 한국어와 한국노래, 그림을 가르치고, 남자단원은 체육수업을 맡아 한다. 처음에는, 너무 즉흥적으로 수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 당황하기도 하고 무슨 수업을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다. 지금은 즉흥적으로 부탁이 들어오더라도, 미리 준비해 간 색종이를 이용하거나, 교재를 이용해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은, 우리도 더 많이 준비할 수 있고, 아이들도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수업을 맡았으면 한다.



## [2] 한국반 꾸리기



‘한국방’은 학교 안의 큰 연못가에 위치한 나무 건물이다. 원래는 스님들이 명상을 위해 사용하던 장소였다고 하고, 실제로 한국방 안에는 불상이 있다. 처음 방문했을 때, 방은 사람의 손길이 한 동안 닿지 않은 듯 먼지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에 청소하는 데만 반나절을 보내야 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태극기, 한국지도, 부채, 하회탈, 각종 엽서 등으로 방을 꾸몄다. 우리는 이 곳을 회의도 하고, 휴식도 취하는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



완성된 한국방 실내모습 ^^



### [3] 비디오/사진 촬영

사진촬영이 있는 날이면 '권윤경' 단원은 좋은 영상을 담기 위해 탐험을 떠납니다 : )



JIRATIWAT학교의 비디오 촬영 담당인 권윤경 단원은 학부모 설명회, 각종 회의 등 학교 내 행사는 물론, 경연대회, 퍼레이드 등 학교 밖 행사에서 아이들의 모습을 영상에 담기 위해 항상 카메라를 손에서 놓지 않고 지낸다. 교장선생님이 이 비디오 촬영을 엄청나게 강조하시는데, 가끔은 일의 본래 목적보다 비디오 촬영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촬영한 비디오가 더 많은 지원을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되고,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열심히 찍고 있다.



## [4] 환경캠페인

JIRATIWAT학교는 큰 연못과 많은 나무들이 있는 아름다운 학교이다. 하지만 안을 들여다 보면, 공사자재, 과자 봉지, 우유팩 등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다.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쓰레기를 태워버리기 때문에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아이들의 건강도 걱정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를 깨끗하게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하고 프로젝트의 첫 번째 활동으로

### “BIG CLEANING DAY”

30일 오후 시간을 이용해 진행했다. 우선 강당에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모시고 20여분 프리젠테이션을 가졌다. 플라스틱백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동영상 상영하고, 학교 곳곳의 현재 모습을 슬라이드 쇼로 보여주면서 왜 Big cleaning Day를 가져야 하는지 설명했다. 이에 더해서, 플라스틱 백을 소각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이옥신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사진을 함께 보며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함을 설명했다.



프리젠테이션이 끝난 후, 우리는 처음 계획했던 대로 5개로 그룹을 나누어 청소를 시작했다. 우선 박소영 단원은 아이들과 함께 분리수거통을 닦고, 새로 분류하고 꾸미는 작업을 했다. 이전에는 분리수거 체계가 다소 애매하고, 실제 생활과 안 맞아 실제로 분리수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한 작업이다. 그 동안 다른 팀원들은 구역을 나누어 쓰레기를 주웠다.





쓰레기와 공사자재를 치우는 작업은 금방 끝났지만, 쓰레기 소각장에서 플라스틱백을 분류하고 잿더미를 처리하는 일이 문제가 되었다. 일단 분류해야 할 플라스틱백과 잿더미의 양이 너무 많았을 뿐더러, 냄새와 쓰레기를 태우는 연기 때문에 작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결국 우리는, 우리와 학생들의 힘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의견을 교장선생님께 전달했고, 교장선생님도 사태의 심각성을 눈으로 확인한 후, 우리 의견에 동의를 하고 썩사이 관청에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근본적인 이유는, 이 마을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이 들어오지 않고, 학교에서도 환경호르몬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계속해서 플라스틱백을 태워온 데에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청소작업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태권도



우리는 교장선생님으로부터 12월 25일 진행되는 학교 행사에서 아이들이 한국관련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줄 수 있겠냐는 부탁을 받았다. 교장선생님은 광저우 아시안게임 중계방송에서 태권도 시범단 공연을 보시고, 태권도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다.

이에 우리는, 태권도와 합창공연을하기로 결정했다. 태권도는 품세시범을 보이기로, 합창공연은 아리랑을하기로 하고 아이들을 모집하고 3번 정도 연습을 가졌다. 열심히 연습을 하고는 있지만, 막상 12월달에 아이들과 연습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

## ·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점

태국에 와서 처음으로 현지 스텝과 떨어져서 지내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겼다. 이 학교에는 영어 능통자가 없고, 우리 중에도 태국어 능통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의사소통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전을 들고 다니거나, 구글번역기를 이용하는 등 소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의사소통이라는 문제는 비단 우리와 학교사이의 문제가 아닌 듯 하다. 학교에서 한 달간 지내면서, 우리는 교장선생님과 다른 선생님 사이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인상을 받았다. 교장선생님이 오전 10시 예정이던 회의를 오후로 연기해 놓고, 다른 선생님들에게 말해주지 않는다거나, 체육선생님이 우리에게 수업을 부탁했는데, 마침 그 시간에 교장선생님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사례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인상을 받고 있다.

우리는 Big Cleaning Day를 준비하면서, 교장선생님에게만 우리 의견을 전달해서는 다른 선생님들에게 전파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 교장선생님께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미팅을 요청하기도 했다. 몇 번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는 학교와 소통하는 방법을 알아가고 있다.



- 권윤경: 어딜 가나 아이들이 우리를 부르면서 쫓아온다. 슈퍼스타가 된 기분이다. 아이들이 우리에게 연신 말을 걸지만 이해 못할 때가 많아 답답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다. 어느 아이들이나 귀여운 건 매한가지지만, 수업 할 때, 가끔 말을 안 들으면 말로 타이르기도 힘들고 얄미울 때도 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이 '아리랑'을 무척이나 좋아하셔서 학교에서 '아리랑'을 몇 번이나 불렀는지 모른다. 다음에 선생님 만날 때 아리랑 독음을 써서 드려야겠다.



-김현주 : 처음 생각과는 달리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는 아직 정규 수업은 하지 않고 있다. 처음에는 내가 이 곳에서 뭘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굳이 정규 수업을 하지 않아도 아이들과 함께 한다면, 그리고 굳이 수업이 아니더라도 학교에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다면 이게 내가 여기 온 이유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크고 거창한 일이 아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조준희 : 가끔은 일을 진행하면서, 교장선생님을 이해 못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교장선생님이든, 우리든 모두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이해하려 노력하고 최대한 많이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아직 정기적인 수업을 들어가지 않고는 있지만, 3주 좀 넘는 시간 동안 아이들과 만나면서 정이 많이 들었다. 비자연장을 위해 9일간 마을을 떠나는 날, 아이들이 아쉬워함이 많이 느껴졌다. 나도 따라다니며 “피펫!”하고 부르는 아이들이 많이 보고 싶다! 남은 한 달 동안, 더 많이 얘기하고,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야겠다! 우선 이름부터 다 외우고...

- 김우겸 : 어린 학생들과 달리 중학생들은 어색해 하며 쉽게 다가오지 못하는 것 같다. 특히 남학생들이 더한 것 같은데, 내가 먼저 다가가려고 노력하지만, 아직은 쉽지 않다. 또한 170여명이나 되는 아이들의 이름을 외우는 일은 너무 어렵다. 이름의 글자 자체가 한국 사람인 나에게 너무 생소한 단어이다 보니 더욱 어려운 것 같다. 한 달이나 지난 지금 몇 번이나 이름을 물었던 아이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때는 미안한 마음 뿐이다.

-박소영 : JIRATIWAT 학교에서 벌써 11월 한 달을 보냈다. 매일 아침마다 다같이 청소를 하고 조회를 한다. 조회음악은 아이들의 라이브 반주 (북/멜로디언/실로폰) 로 연주되는데 아직도 볼 때마다 신기하다. 태국아이들은 정말 만능 인 것 같다. 이제는 익숙한 아이들이 하나 둘 나를 따르면서 ‘탑팀’ 부르며 품에 안기고 태국어로 안부를 묻는다. 귀엽다 : ) 몇 일 전에는 아이들이 갑자기 나를 긴박하게 한국 방으로 끌고 갔었다. 난 무슨 일이 크게 생긴 줄 알고 걱정했는데 알고 보니 ‘귀신 소동’ 이었다. 똑도가 움직이는 것을 아이들이 귀신으로 착각 한 것이다. 재미있다.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참 좋다.



람팡 (11월12일)



11월 11일 학교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삼캄팡 YMCA로 돌아왔다. 금요일 학교 수업이 있음에도 하루 일찍 돌아온 이유는 12일 람팡에서 있을 영어 Work Shop 때문이었다. 20여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샵에서 우리는 오전 세션을 담당하게 되었다. YMCA에서는 우리에게 라온아띠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길 바랐다. 우리는 고민 끝에 단순히 라온아띠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아시아라는 주제를 태국 대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였다.

## 우리가 준비한 'Friends of Asia'

Hello, Thailand RaonAtti

สวัสดีครับ นิน นอน นันทิมา

Do You Know About Asia?

Our purpose

- Go to the people
- Live among them
- Learn from them
- Plan with them
- Work with them
- Start with what they know
- Build on what they have

- 한 명씩 자기소개 하기 -> 준비받기 4개 팀으로 나누기 '라온' '아띠' '좋은' '친구'
- (1) ASIA 지도에서 국가 이름이 가려진 상태로 조별로 나와 준비에 적합한 나라 위치 맞추기
  - (2) DO YOU KNOW ABOUT ASIA? 아시아 관련 퀴즈 풀기
  - (3) 각 조별로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에 대해 고민해 보면서 전지에 그림+글로 표현하고 발표하기
  - (4) 라온아띠 우리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무리 ^^

RaonAtti



마지막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를 진행할 때 우리가 처음 원했던 것은, 아시아라는 틀 안에서 가질 수 있는 고민들이나, 공통점 등을 생각해 보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시아”라는 주제가 오전이라는 시간동안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한 주제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룹이 음식, 대중문화, 국가이미지 등 표면적인 내용을 표현하는데 그쳤다는 것이 아쉬웠다. 더불어서 태국, 중국, 한국, 일본 등 몇몇 국가에 대한 내용들만 있었던 것도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이런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하루 전 날 급하게 준비한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진행되었고 태국 대학생들도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어서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태국 대학생들이 아시아에 대한 질문들을 접하고 서로 고민하는 것을 보면서, 이 시간이 이 친구들로 하여금 아시아라는 주제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훈련 기간 강의를 들은 이후로 주로 마을, 학교 등에서 활동에 집중하느라 아시아라는 큰 틀에 대해 생각해볼 시간이 적었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우리도 아시아를 더 많이 배우고 생각해 보게 되었다.





# 11월 우리들의 홈스테이 이야기

<첫번째 이야기>

산사이의 작은 시골 마을에 사는 엄마(42세) 옥(24세) 논(14세) 을 소개합니다.



## 엄마

거침없는 직설적인 말투와 호탕한 웃음이 매력적.  
언제나 응아이 응아이(쉽게 쉽게)를 외치시며, 오토바이로 치앙마  
이 시내까지 50분만에 주파하는 스피드 레이스.  
한국의 영화배우 중 김래원을 가장 좋아하신다.  
현재 유치원 교사로 재직 중. 집안의 가장이자 최고 어른.

## 논

춤추는 것과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며 가수가 꿈인 아이.  
샤이니의 태민이를 가장 좋아하고, 가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하루  
도 빠짐없이 춤 연습과 기도를 한다.  
숙제하는 것을 싫어하고, 아침 6시 기상을 너무나도 힘들어한다.  
저 멀리 100M 밖에서 달려오는 차를 보며 나를 조심시키는 모습  
은 어른스럽지만, 5바트짜리 아이스크림 하나에 행복해 하는 모습  
은 영락없는 14세 소년  
뽐뽐이라는 3년된 여자친구가 있다. 다른 마을에 살고 있다고 하  
나 1달 동안 같이 살면서 만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가상의 인물이 아닐까 의심이 된다.



# 일

11월 3일자로 이 집의 가족이 된 옥.  
처음에는 이 집에 사는 것이 폐가 되지 않는까 하는 마음에 걱정이 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뽀뽀하게 내 집인양 마음 편하게 살고 있는 청년.  
종종 속 썩이는 논 때문에 화가 난 어머니의 마음을 풀어주는 역할도 함.



# 일상

## 월 - 금

아침 6시 알람 소리에 잠을 깨어 5분만 더 자고 싶다는 논을 화장실로 보낸다. 씻고 옷을 입고 학교 갈 준비를 마친 후 주방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하고 계시는 어머니와 바톤 터치를 한다. 이때부터 내가 요리를 시작하고 어머니는 유치원 출근 준비를 하신다.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는 자전거 뒤에 논을 태우고 학교로 등교한다. 학교 가는 길에는 오르막길이 종종 있다. 중학교 2학년인 논을 뒤에 태우고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이다. 두꺼운 허벅지가 더 두꺼워 지고 있음이 느껴진다. 하지만 길가에 양 갈래로 서 있는 울창한 나무들 사이를 논과 함께 샤이니의 '링딩동'을 들으며 달리는 일은 그 힘들음을 조금이나마 덜어준다.





4시에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샤워를 한 후 저녁준비를 한다. 엄마도 4시에 유치원이 끝나기 때문에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비슷하다. 저녁메뉴는 주로 돼지고기를 많이 먹는다. 처음 왔을 때 무슨 반찬을 좋아하냐는 말에 돼지를 좋아한다고 했더니, 집에서 먹는 날이면 매번 나오고 있다. (이 사실을 옆집 사는 닌(김현주)의 어머니가 아시게 된 이후로 날 볼 때마다, 욕은 한국으로 돌아갈 때 돼지 얼굴이 되어서 한국 엄마가 못 알아 볼 것이라며 놀리시곤 한다.)

사실 우리 집은 저녁을 밖에 나가서 사 먹는 일이 많다. 엄마가 어린 아이들을 상대하는 유치원 선생님이니 많이 피곤하신 것 같다. 집에서 요리를 해서 먹는 것 보다는 밖에서 외식하는걸 즐기신다. 집 근처에도 식당이 몇 군데 있지만, 한번도 가본적은 없다. 아무리 가까워도 엄마의 오토바이를 3명의 가족이 함께 타고 15분 이상 달려 한국의 읍내 정도 되는 곳에서 분위기 있고 깔끔한 식당을 찾아 다니며 먹는다. 앞서 가족소개에서도 말했듯이 엄마의 오토바이는 웬만한 차들을 다 앞지르며 달리는 엄청난 속도를 자랑한다. 오토바이가 좋아서라기 보다는 엄마가 세계 당기신다. 처음에는 3명이나 탄 오토바이가 너무 빨리 달리는 것 같아 무섭기도 했지만, 이제는 적응이 되어서 아무렇지 않게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밥을 먹고 난 후 저녁 시간에는 주로 한국 이야기를 하거나 티비를 보다 잠자리에 든다. 엄마와 논은 한국에 관심이 많다. 가끔 엄마는 내가 자세히 알지 못하는 정치적 이슈에 관련된 이야기를 물어보셔서 깜짝 놀라기도 한다.



## 토-일

주말 아침은 딱히 정해 놓은 기상 시간이 없다. 보통 8시쯤 일어난다. 일어나서 씻고 잠을 좋아하는 내 동생 눈을 깨우고 아침 준비를 한다. 주말에는 엄마가 계시지 않는다. 주말에 엄마는 치앙마이 시내에 나가서 일을 하신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세끼 다 논과 내가 직접 해먹어야 된다. 엄마가 식비를 주시고 재료들을 사놓고 가서서 큰 어려움은 없다. 처음에는 이래저래 각종 조미료들을 섞어서 이름 없는 요리를 만들어 먹는 재미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늘은 어떤 반찬을 먹어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 논에게 먹고 싶은 것을 물어보면 '육 형이 만들어 주는 것은 다 맛있다' 라는 말로 내 머리를 더 아프게 한다. 한국에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주부의 마음을 태국 땅에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한국에 돌아가면 아시아의 좋은 친구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집에 계시는 한국 엄마와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 에피소드

1. 홈스테이에 들어온 첫 날. 여기저기서 들은 이야기도 있고 해서인지, 너무나도 당연하게 홈스테이 식구들과 맛있는 저녁을 먹으며 나를 위한 환영 파티를 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잘못된 것이었다. 엄마는 일이 있어 저녁 시간에 집에 계시지 않았고, 난 그날 저녁 논과 함께 마마(라면)을 끓여먹었다. 덕분에 깨달을 수 있었다. 특별한 대접을 받으려 했던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이었고, 난 그냥 이 집의 평범한 아들이라는 것을.



2. 어느 날 엄마가 나에게 말했다.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 맛이 있냐고. 나는 '아러이 막막'(정말 맛있다)라는 대답을 하였고, 엄마는 흡족해 하시며. "좋아! 너 무조건 맛있다고 말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엄마는 밥을 해주지 않을꺼야"라는 무시무시한 말썸을 하셨다. 이후로 '아러이 막막'은 내가 마을에서 가장 자주 하는 말이 되었다.

3. 내 동생 논은 시간에 있어 관대하다. 한번은 내가 '몇시야?'라고 물은적이 있는데, 3시라고 대답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시간은 3시 45분이었다. 그 이후로도 계속 물을 때마다 뒤에 '분'은 생략하고 앞에 '시'만 대답해 주었다. 논은 습관을 알게 된 지금은 '몇시야?'라고 묻지 않는다. 논, '몇시 몇분이야?'



## 마무리

1달이라는 시간을 같이 살면서 가족들이 나에게 가장 많이 묻는 말은 '행복하니?'이다. 엄마와 논은 다른 집에 비해 엄마가 함께하는 시간이 적어서 내가 행복하지 않을까 무섭다고 말하곤 한다. 물론 난 항상 웃으면서 많이 행복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사실이다. 정말 행복하다. (가끔 오늘은 멀 먹어야 되나 하는 고민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지만) 비록 엄마와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는 못해도 내 동생 논과 24시간 함께하고, 나에게 잘해주려는 엄마의 마음이 느껴지기에 찐짜이에 사는 욕은 행복하다.



## <두번째 이야기>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씻고 밥을 먹은 뒤 7시쯤이면 내가 삼총사라고 부르는 (닝판 + ningbang + ningpiyu) 와 함께 엄마, 아빠, 이모, 이모부 그리고 ningpan 에게 “싸와디카” 를 힘차게 외친 뒤 자전거를 타고 학교로 출발 : )  
학교 가는 길에는 지난밤 함께 공부했던 ‘한국어’ 와 ‘태국어’ 복습도 하고 한국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지만 하루하루가 특별한 나날 ^^



สามดี ทีม  
โฮมสเตย์  
이야기

2010-11-03 ~ 2010-11-30

나에게 '또 하나의 가족' 이 생겼다.

2010년 11월 3일, 짠캄팡 YMCA를 떠나 2달 동안 본격적으로 생활 하게 될 짠짜이 마을로 향했다. 먼 훗날 얘기 일 것만 같았던 마을에서의 생활, 그리고 홈스테이가 시작된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매일 출근하는 'JIRATIWAT' 학교에 도착해서 선생님들에게 인사를 하고 한명 씩 홈스테이를 하며 지내게 될 '가족'을 소개받았다. 그리고 나에게 12살짜리 귀여운 여동생이 생겼다.



우리 가족을 소개합니다.



## 내 동생 '딤'

처음 만난 날 수줍어 하면서 나에게 다가온 아이.  
모두가 하나같이 나랑 비슷하게 생겼다면..  
태국에 숨겨둔 동생 아니냐고 말했다. 하하 : )

내 동생 '딤'은 애교가 넘치고 귀엽다.

무엇보다 밤에 침대에서 한국어 공부를 같이 하고 나면  
다음날 아침 다소 수줍어 하면서 우리 다섯명에게 다가와  
'안녕하세요,~~' 한국어로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묻는다.

우겸 오빠는 딤에게 못난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귀여워 하고,  
현주는 한국에 있는 친동생과 똑같이 생겼다면 좋아해 준다.  
이런저런 이유로 내 동생 '딤'은 우리 다섯명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딤'은 나의 어설픈 태국어를 바로 잡아주고, 새로운 태국어를  
알려주는 선생님, 마을에서 만난 가장 친한 친구 이자 나에게  
둘도 없는 '동생'이다. 이 아이를 만나서 11월 한달 동안 참 많  
이 웃었고 행복했다.



“딤, 너는 어디 가보고 싶어?” “한국 여행 가고 싶어요.”  
“한국에 놀러 와! 언니 집에서 먹고, 자고, 같이 놀러다니자”  
“지금은 돈이 없고, 나중에 커서 의사되면 돈 많이 벌어서 놀러  
갈게요”

P.S) 먼 훗날 '딤'이 한국으로 여행 오는날, 그날이 기다려진다.



# 가족사진



## '엄마 & 아빠'

엄마,아빠는 아침 일찍 치앙마이 시내로 일을 하러 나가신다. 보통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밤 11시쯤, 오후 근무일 때는 하루에 한 시간도 채 얼굴을 보고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 마을에 들어와서 밤 9시면 잠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 그런 점이 많이 아쉽지만 휴일(매주 화요일)이면 이런저런 한국 가족이야기도 나누고 학교에서의 활동도 이야기하면서 일주일 동안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을 쏟아낸다. 한국에서는 많이 볼 수 있는 맞벌이 가족의 생활이다.

## '이모 & 이모부'

처음 홈스테이에 들어와 일주일 정도는 아빠와 함께 살지 않았다. 엄마,아빠는 일 때문에 치앙마이에 계시고, 이모네와 함께 살았다. 그러다 이모네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신 후로(바로 옆집) 엄마,아빠가 치앙마이 에서 지금 현재의 집으로 이사를 오셨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은 바쁜 엄마를 대신해서 이모가 주로 아침,저녁을 해주시고 나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샤워를 하고 이모와 함께 저녁을 준비한다. 함께 요리를 하고 밥을 먹고 카놈 (과자/과일)을 먹으면서 태국 시트콤을 함께 본다. 아! 이모네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나는 두 집을 오가며 지내고 있다. 엄마,아빠가 밤늦게 오시는 날에는 이모네 집에 가서 숙박을 해결하고 다시 아침이면 원래의 집으로 돌아와 학교 갈 준비를 한다.



## ‘뱅&팬’

9살짜리 ‘뱅’과 1살짜리 ‘팬’ 이모네 아이들,  
처음에는 낯선 외국인인 나를 어색해 하면서 많이 울었던 ‘팬’이  
요즘은 어설픈 발음으로 ‘탑팀’이라고 불러준다. 춤추고 노래 부르  
는걸 좋아하고 목욕을 싫어한다. 매일 밤마다 목욕시간이 되면  
‘팬’의 울음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뱅’은 장난치는 걸 좋아하는 전형적인 9살 짜리 사내아이이다.  
그리고 한 침대에서 같이 잘 때면 밤새 잠 못 자게 하는 ‘뱅’으로  
잠버릇이 썩 고약하지만 평소에는 해맑게 한국노래를 따라 부르고  
내가 짧은 태국어로 무언가를 물어보면 친절하게 대답해 준다.

## ‘피유’

귀여운 우리 옆집아이. 학생 중 누군가가 내가 피유네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는 줄 알았다고 말 할 정도로 무엇이든 함께 한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태국어로 나에게 많은 것을 물어보는데 내가  
잘 못 알아 들을 까봐 천천히 말하는 것을 물론이고 그림까지  
함께 그려준다. 요즘에는 태국어 알파벳을 알려주는 선생님이다.



## ‘우리집’



주방

자동차/오토바이/자전거 주차장

2층 침실

1층 화장실/거실/TV





우리집 앞마당

오리 & 닭



2층 (엄마, 아네하방 & 우리방)



우리방



주방



화장실

## 11월 한달, 홈스테이를 하면서 ...

홈스테이 시작전 막연하게 '홈스테이'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낯선 사람 속 에서 홀로 지내야 한다는 생각이 컸기 때문이다. 또 2달 여라는 긴 시간이 더 마음에 걸렸었다. 하지만 직접 한달 동안 홈스테이를 하며 살아보니 모든 걱정들이 쓸 때 없는 것이었다. 생각보다 훨~씬 잘 적응하고, 잘 먹고, 잘살고 있다. 벌써 한 달이란 시간을 살았고, 앞으로 남은 시간이 한달 여 밖에 남지 않았다. 요즘 나에게 있어 가장 큰 숙제는 앞으로 남은 시간동안 어떻게 알차게 보낼까? 그리고... 이들과 어떻게 이별을 할까? 이다. 너무 큰 숙제를 안고 다시 마을로 들어간다. 마음껏 나누고 하루 하루 더 소중하게 살아가야 한다. ^^\*

+ 몇 일전 이모가 나에게 '탑팀 똥똥해' 라고 말하셨다...  
 짠캠핑에 있을 때 보다 홈스테이를 시작하고 나서 더 살이 찼다. 그 이유를 찾자면 우선 첫 번째로 배가 고프고, 두 번째로 음식이 입맛에 맞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이유! 매일 같이 한 접시를 다 비우기도 전에 더 먹으라고 말하는 이모님과 가족들 덕분이다. 한끼에 밥 2접시 정도는 기본으로 비워줘야 만족해하신다. 하하 앞으로 남은 12월 까지 다이어트는 잠시 포기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ㅏㅏ



## 레이프라통 (11월19일~21일)

우리나라 설날처럼, 태국에서 가장 큰 행사인 '레이프라통'을 마을에서 가족과 함께 보냈다. 우선 19일 학교에서 만든 프라통을 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온 가족이 아빠 차 뒤에 타고 프라통을 띄우러 갔다. 프라통 위에 머리카락과 손톱, 그리고 1바트를 넣고 촛불을 켜다. 여기서 에피소드 하나. 갑자기 '딤'이 나에게 가위를 들이 대면서 말하기 '탑팀언니 머리잘라요' 난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응? 뭐 하는 거니" 라고 물으니 주변에 있던 가족들과 동네 아줌마들이 웃으면서 자신에게 있는 나쁜 것들을 함께 실어서 보내는 거라고 설명해주셨다. 난 순간 '딤'이 장난으로 미용실 놀이를 하자는 줄 알았다. 11월 20일에는 킷앗 (학생들이 방과후 활동하는 공간)에 가서 닌과 함께 '콤파이'를 만들고 집에 돌아오니 대문이 바나나 잎으로 꾸며져 있고 촛불과 미니 '콤파이'들이 걸려있었다. 저녁을 먹고 난후 다같이 모여 집앞에서 '콤파이'를 띄우면서 소원도 빌고, 폭죽놀이도 했다. 하늘을 보니 이미 많은 콤파이들이 하늘에 떠있었다. 21일 일요일에는 '왓'에 가서 마을 축제를 함께 즐겼다. 그 전날 킷앗에서 만든 콤파이도 띄우고 이런저런 다양한 행사 속에서 내 인생에 어찌면 처음이자 마지막일 지도 모르는 '레이프라통' 축제가 끝이 났다.

### 4기 태국팀 日

'콤파이'를 태국에서 구입해가서 간사님 & 라온아띠 4기 친구들과 함께 하고싶은데, 2월, 한국에 돌아가면 겨울! 콤파이가 과연 뜰수 있을지 ㅜㅜ





# NILL

# 홈스테이 일상







## 싸이

매일 아침 나와 함께 등교하는 내 동생  
초등학교 6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나랑 키며 몸무게가 별 차이 안 난다.  
아침 저녁으로 자전거에 태우고 다니기 힘들다 사실 ...  
배구로 유명한 지라티왓에서도 에이스 + \_+

## 큰매(어머니)

매일 낚여여를 외치셔서 현재 내 몸무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계시는 우리 어머니. 함께 요리 하자고 하면 이미 다 했다고 하시면서 가서 티비 보라고 하시지만, 항상 그 이후로도 요리가 1시간은 이어진다. 결국 나는 칼을 뺏어 드는 수밖에.

## 큰퍼(아버지)

집 앞에서 칼 만드시는 우리 아버지.  
가끔 어머니가 안 계실 때에는 아침밥을 해주시기도 한다.  
저녁과 함께 먹는 위스키를 매우 좋아하심 !

## 애

학교 근처 Kids Ark라는 곳에서 일하는 우리 오빠. 태국 나이로 25살이다.  
차가 있어서 자주 함께 놀러 간다. 다른 팀원들이 모두 부러워 하는 점!  
가끔 무서운 기타 선생님이로 변신하기도 한다.





아침 6시에 깃가에서 울어대는 것 같은 닭 울음 소리와 함께 기상, 분주하게 학교 갈 준비를 하고, 다 먹지 않으면 학교에 보내주지 않을 것 같은 어머니의 눈빛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합니다. 가끔 준비가 늦어 7시 20분이 다 되었어도, 학교에 아무리 늦어도 절대 밥을 빼먹고 학교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밥까지 먹고 나면 동생 사이와 함께 학교로 출발합니다. 매일매일 몸무게 차이도 얼마 나지 않는 녀씨이를 자전거 뒤에 태우고 학교에 가다 보면 어머니가 밥 안 먹으면 학교에 못 가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머니께 참 감사한 마음이 들곤 합니다. 7시 30분 학교에 도착! 오전 타임을 보내고 11시 30분 점심시간이 되면 선생님들과 함께 점심을 먹습니다. 애기들이랑 군것질도 하구요. 그리고 오후타임. 오전타임과 마찬가지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3시 30분. 최근엔 우겸오빠와 함께 3시 30분부터 4시까지 30분간 태권도 수업을 합니다. 사실 저는 도장에 가본 적도 없는데 말이에요... 30분간의 짧은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은 집으로 숨 갑니다. 그럼 저는 녀씨이를 찾아 나섭니다. 우리 녀씨이는 배구를 참 잘해요 ^^\* 저희가 있는 지라티왓 학교는 배구로 유명합니다. 고로, 거의 매일 배구 연습이 있는 관계로, 저는 녀씨이를 기다리거나 혹은 쓸쓸하게 집에 먼저 갑니다. 사실 가끔 쓸쓸하게 혼자 가는 게 더 좋기도 합니다. 녀씨이를 뒤에 태우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저는 피탑팀과 피육과 같은 마을이기 때문에 주로 이 두 분과 집에 함께 갑니다.



집에 승 도착하면 아버지는 집 앞에서 칼을 만들고 계시구요, 어머니는 밥 준비를 하십니다. 그럼 저는 쫄쫄하게 인사를 하고 어머니와 함께 밥 준비를 시작합니다. 어머니는 매일 압납껌(샤워 먼저 해)이라고 하시지만, 저는 매일 탐아한두어이(같이 요리해요)라고 외칩니다. 나중에 어머니는 저를 샤워 안 한다고 놀리시죠. 밥 먹고 분명히 씻는데도 --엄마도 밥 먹고 씻으면서 ... 흥. 아무튼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면서 요리를 하다보면 녀싸이가 배구 연습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저희 오빠 피애도 집으로 돌아옵니다. 피애는 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래서 일하는 곳에서 밥을 먹고 돌아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한째(야채)는 맛이 없고 느아(고기), 뿌라(생선)는 맛있다고 하시거든요. 가끔 어떻게 한 집에서 이런 정반대의 식습관이 나왔을까 .. 궁금하기도 합니다. 식사 준비를 다 마치면 녀싸이, 어머니, 피애의 아버지, 녀싸이의 아버지 그리고 저 이렇게 다섯이서 저녁을 먹습니다. 피애와 녀싸이는 사촌간이예요. 녀싸이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이 집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두 분은 술을 참 좋아하셔서 저녁 때마다 위스키를 한 잔 씩 하시곤 합니다. 그리고 태국은 '랍'이라는 생 돼지고기를 다지고 양념해서 먹는 요리가 있는데, 녀싸이의 아버지께서 일주일에 다섯 번은 먹을 정도로 매우 좋아하시는 관계로 저는 이제 돼지고기 다지기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탁탁탁탁탁. 저는 이 곳에 와서 밥 양이 엄청 늘었어요. 어머니께서 두 그릇이상 먹지 않으면 왜 조금밖에 안 먹냐, 더 먹어라. 조금 먹으면 맛이 없는거다 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엄청 시무룩한 표정을 지으셔서 저는 결국 또, 더 먹습니다.





이 곳 태국 북부는 저녁에 설거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밥을 다 먹으면 그릇을 찬장에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샤워를 마치면 어머니의 뜻에 따라 TV를 봅니다. 하지만 저는 마이카오짜이(이해 못했다), 그저 웃지요. 허허허. 그러면서 엄마랑 수다도 떨고, 가끔 녀싸이 숙제도 도와주고, 이미 배불러 죽겠는데 어디선가 계속 나오는 카놈(과자)을 먹습니다. 그리고 가끔 피애에게 기타를 배우기도 합니다. 태국노래를 하나 배우고 있는데, 너무 피엄피엄 하는 관계로 과연 가기 전에 다 배울 수 있을 지가 의문입니다. 가끔은 피욕이 피애와 게임을 하기 위해 놀러 옵니다. 서로의 집에서 소리 치면 들을 수 있는 바로 옆집이거든요. 그렇게 저녁 시간을 보내고 보통 10시 전후에 잠자리에 듭니다. 그러면 다시 시끄러운 꼬꼬댁 소리와 함께 6시에 기상!



우리는 태국의 큰 명절 중 하나인 레이그라통을 마을에서 보냈습니다. 레이그라통 기간에는 콤파익을 날리고 바나나 잎과 꽃으로 만든 그라통을 강물에 흘려 보냅니다. 하루는 미리 만들어 둔 그라통을 가지고 피애의 차에 피욕, 녀싸이, 녀논, 뽀아이 그리고 저까지 총 6명이 썬더 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로 인해 차가 1m가고 30분 서고 하는 바람에 결국 우리 모두 소진. 차를 돌려서 조출하게 강물에 그라통을 흘려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T\_T



이 곳에서 이런 생활을 한 지도 벌써 한 달 가량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나 살아? 라고 생각했던 처음 마음과는 달리, 벌써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점점 '한국에 가면 돌아올거냐', '한국에 가면 이 곳이 그리울거냐'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도 점점 마을에서 나오는 일이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두 달 만에 진짜 가족이 된다는건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두 달 간 정말 가족처럼 함께 지냈던 이 사람들을 떠나는 일도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집을 소개합니다.



남동생 사이파 & 펫 & 엄마

“하이악 파타나”가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어머니 말로는, 건너 마을보단 훨씬 가난한 마을이고, 댐 건설 이후, 수몰지역 사람들이 옮겨와 형성된 마을이라고 한다. 내가 홈스테이를 하고 있는 집은 작고, 한국인의 눈으로 보기엔 뭔가 허술(“구멍이 송송”이랄까)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름다운 집이다. 3명의 가족이 살기에 충분한 크기이고, 집 앞에는 닭 10마리(처음 내가 왔을 땐 16마리였는데 먹어버렸다.)와 개 “여러” 마리가 뛰어 놀고 있고, 집 바로 옆에 있는 연못은 아침마다 그림 같은 물안개 풍경을 연출한다.

이 집에서 나는 엄마,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 어머니는 집에서 재봉틀로 작은 가방을 만드신다. 비싼 가격은 아니지만, 일본으로 수출하기도 한다고 한다. 첫만남 때부터 남다른 카리스마를 과시하셨지만, 사실 유머감각 많고 장난치기 좋아하는, 재미있는 분이시다. 남동생은 중학교 1학년, 이름은 사이파다. 공부하기 싫어하고 뛰어 놀기 좋아하는 천상 13살 아이다. 아버지는 한국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 그 동안, 리비아, 대만, 브루나이에서도 일을 하셨다고 한다. 측량사인 아버지와는, 4,5번 정도 통화를 했고, 한국에 돌아가면 만나 뵈 예정이다.



# 하루 일과

평상시의 일과를 소개하자면, 일단 아침 6시에 닭 우는 소리와 함께 시작된다. 사실 닭은 5시부터 울고 있기 때문에 홈스테이 초반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일어나기 싫어하는 동생을 깨우기 위해 불도 키고 창문도 열고 이불도 뺐고, 온갖 방법을 동원한다. 간단하게 세수를 하고선, 일단 닭 모이를 주고, 청소를 한다. 그러는 동안 어머니가 아침을 준비하신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내가 설거지를 하고, 동생이 밥 먹은 자리를 정리한다. 언젠가부터 굳어진 역할분담. 싸이파를 태우고 오르막과 요철이 난무하는 길로 자전거를 몰아 학교로 간다.

학교를 마치면 거의 곧장 집으로 오는 편이다. 다른 팀원의 형제, 자매들은 방과 후에 배구부 연습을 위해 학교에 남거나 키닷컴이라는, 방과 후 숙제, 악기 연주 등 여러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에 가곤 하는데 내 동생은 “칼퇴근”을 좋아하는 것 같다. 왜 키닷컴에 가지 않느냐고 물어봤더니 예전엔 자주 갔었는데 요샌 집안 일을 도와야 하기 때문에 안가고 있다고 한다. 아무튼, 집으로 돌아오면 어머니와 시장에 가기도 하고, TV를 보기도 하고, 셋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물론 가끔 저녁으로 먹을 닭을 잡아 손질한다거나 튀겨먹을 벌레를 잡으러 집 주변을 돌아다닌 다거나 이장님 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다거나 하는 특별한(?) 일정들이 기다리기도 한다. 항상 “깐여여, 깐 익”(많이 먹어, 더 먹어)를 외치시는 어머니와 늘어가는 벅살걱정에 “마이벤라이”(괜찮아요)를 외치는 나 사이에 일진이 끝난 후에야 저녁식사시간이 마무리 된다. 그리곤 앞집에 사시는 이모를 방문해서 수다를 떨거나(안 되는 태국어로 수다에 끼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몸이 편찮으신 할아버지 댁을 방문해서 약을 챙겨드리기도 한다. 그렇게 8시쯤을 넘기면 슬슬 샤워를 하고 잘 준비를 한다. 태국의 겨울은 생각보다 엄청 춥다. 하물며 매일 밤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려면 정말 마음의 준비를 하고 물을 뿌려야 할 정도다. 아무튼 샤워를 마치면 일기를 쓰거나, 누워서 TV를 보다가 자연스럽게 잠을 잔다. 보통 취침시간은 9시 30분. 24살이 되어서, 태국에 와서야 새나라의 어린이가 되어가고 있다.





## “찌꿍”

처음 집에서 밥을 먹던 날, 카리스마 넘치는 우리 어머니가 반찬을 하나 만들어 주시며, “나는 반찬 여러 개 안 만들어. 앞으로도 반찬은 하나씩이야”라고 못을 박았다. 하지만, 매 끼니마다 맛있는 걸 만들어 주시려고 항상 고민하신다. 실제로, 어머니는 저녁메뉴 정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 말씀하셨다. 처음 3일 동안은 “찌꿍”만 먹었던 것 같다. 찌꿍은 손가락 두 마디 정도 크기의 벌레이름이다. 튀겨먹기도 하고 매운 고추소스에 섞어 밥을 찍어먹기도 한다. 언젠가 YMCA에서 찌꿍을 먹었는데, 외국인이 큼지막한 벌레를 먹는 모습이 퍽 신기했는지, 우리 스텝이 어머니에게 내가 찌꿍을 좋아한다고 말해버린 것이다. 그래서 첫 3일 동안은 이 찌꿍만 먹은 것. 싸이파와 함께 한 첫 기억 역시, 둘이 삼을 가지고 찌꿍을 잡으러 집 주변을 돌아다닌 기억이니, 나름 뜻 깊은 벌레라고 할 수 있겠다. 그 외에도 난생 처음, 닭도 잡아보고 바나나가 아니라, 바나나나무 꽃도 먹었다. 먹는 게 남는 거, 라고 하는데 정말 같이 음식을 준비하고 둘러앉아 밥을 먹는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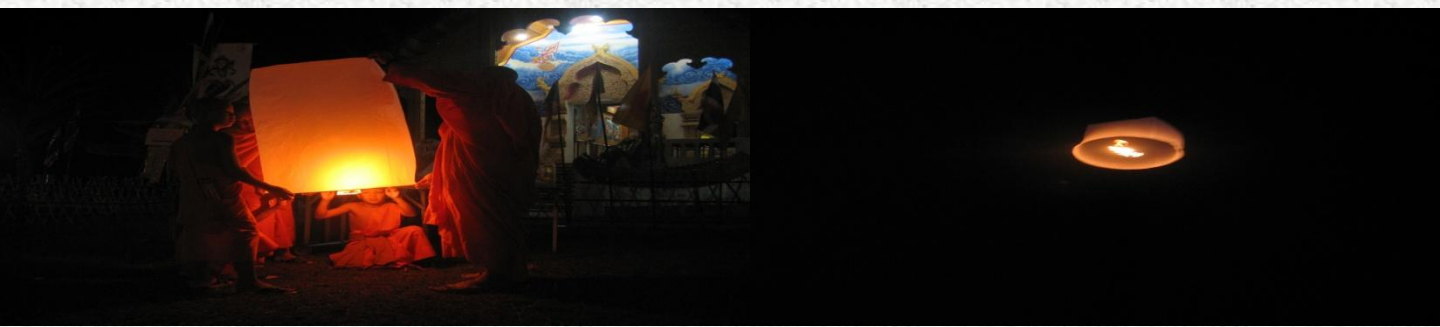
## 로이 끄라퉁

11월 21일은 로이 끄라퉁 축제 날이었다. 엄밀히 말하자면 앞뒤로 하루 이틀, 모두 축제날이다.(보름달이 떠있는 동안 축제라고 한다.) 우리 집에서 파티가 벌어졌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외국의 명절잔치라는 건, 보통 도전 지구탐험대나, 세계가 간다에 나오는, 마을 주민들이 민속의상을 차려 입고 전통 음식을 나누고, 의례를 진행하는 그런 잔치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 집에서 벌어진 파티는, 정말 파티였다. 갑자기 어디선가 노래방 기계를 구해와 설치하고, 박스 채로 술이 들어왔다.



많은 사람들이 놀러 와 랍(“다지다”라는 뜻. 고기를 다져 피, 간 등 내장을 섞어 먹는 요리)과 술을 나누고 노래를 불렀다. 여느 한국 시골 잔치와 비슷한 분위기. 한 쪽에서 파티가 진행되는 동안, 옆에서는 콤파이(등피우기와 유사)를 띄우며 소원을 빌었다. 어머니는 내가 얼른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어주셨다고 한다.

21일, 로이 그라통 당일에는 사원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벌어졌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집에서 손님들을 받느라 사원에 늦게 서야 갈 수 있었다. 사원에 가기 전, 마을을 흐르는 작은 강으로 가서 그라통을 띄웠다. 그라통 띄우기는 바나나나무 밑등을 잘라 장식한 후 초와 향을 꽂은 “그라통”을 강에 띄워 보내는 의식이다. 로이 그라통은 한 해 동안 강에게 신세 진 것을 감사하고, 강을 괴롭힌 것을 사과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의식을 진행한다고 어머니가 말해줬다. 아무튼, 그라통을 띄운 후 사원으로 향했다. 사원에는 여러 참여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었고 나와 싸이파는 콤파이를 공중에 있는 원 안으로 들어가게끔 날리는 게임을 했다. 4번을 했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사실, 이틀 동안 너무 체력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많이 피곤했었는데, 싸이파와 콤파이를 날리면서 피로를 잊고 축제를 즐길 수 있었다.



## 홈스테이에 대한 생각들

흔히 홈스테이라 하면,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은 집에 화목하게 살아가고 있는 가족과 함께 지내며 문화를 체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고 나 역시 여기에 오기 전 까지 그런 홈스테이일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우리 집은 물론이고 다른 팀원들의 가정을 살펴 보면,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도 있고, 어떤 이유에서든 가족이 떨어져 지내는 경우도 많다. 이곳 YMCA에서 그런 점까지 모두 고려하여 호스트 패밀리를 섭외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평범하지만은 않은 이 홈스테이를 통해 문화를 넘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지난 10월 농촌체험을 다녀와 쓴 보고서에, 태국의 마을공동체가 사원을 매개로 해서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썼었다. 하지만 실제로 한 달을 살면서 느낀 점은 마을공동체 차원의 결속력 이전에, 가족공동체가 온전히 유지되지 않는 가정이 상당히 많다는 점이다. 경제적인 이유에서 치앙마이 시내에 살며 일을 해야 하는 경우라든가, 혹은 단순히 집이 좁아서 옆집으로 나뉘어 사는 경우, 혹은 우리 집처럼 아예 해외에서 일을 하시는 경우도 있다. 물론 경제적인 이유뿐 아니라 이혼이나 별거 등의 이유 역시 존재한다. 아무튼, 여러 이유로 떨어져 지내는 가족이 상당히 많다는 점은 10월 1박2일간의 농촌체험에서는 알 수 없었던, 홈스테이를 통해서 마을의 속까지 들여다보고서야 알 수 있었던 점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이 이 마을에 국한된 문제인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말이다.

겉으로 보기와는 다른 진짜 태국마을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동시에 “가족”에 대해서도 많이 느끼고 배우게 된다. 역시 앞에 말했던 것과 같이, “엄격한 아버지와 자상한 어머니와 토끼같은 동생”이 함께하는 그런 홈스테이가 아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다. 나의 태국가족은 아버지의 부재 외에도 몇몇 고민들을 가지고 있지만, 어머니와 싸이파가 친구처럼 알콩달콩 재미있게 지내며 살아가는 가족이다. 실제로 싸이파는 지난 한 달 사이에, 집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두 번 눈물을 보인 일이 있는데 항상 어머니와 서로 토닥거리며 웃으면서 끝나는 편이다. (내가 한국의 우리 가족이야기를 공개적으로 구구절절 쓸 수 없듯이, 역시 가족인 호스트 패밀리의 속사정을 구구절절 쓰지는 못하지만)



몇몇 일 때문에 가끔 힘들더라도 이 가족은 서로를 위로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나 역시, 두 달 동안, 어떤 관찰자의 입장이 라든가,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알콩달콩 살아가는 속에서 같이 부대끼는 가족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한 달, 그렇게 살아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체판단이지만!)

사실, 두 달이라는 시간이 엄청 짧다고 생각했다. 그 사이에 정을 붙일 수 있을까, 손님으로 두 달을 지내다 나오게 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한 달 채 안 되는 시간을 함께 보내는 동안 스스로 놀랄 정도로 정이 들더라. 우리 팀원들이 좋아하는 태국 노래 중, “락 마이 퐁깐 외라”(사랑에 시간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곡이 있는데, 정말 제목 그대로. 3, 4일 머물다 가는 체험이 아니라, 두 달을 “살아가는” 그 이후엔, 1기 안효섭 단원처럼 나도 태국에 돌아왔을 때, 돌아갈 가족이 생기지 않을까





## 윤경이의 홈스테이



## 홈스테이를 시작하면서...

태국 팀 프로그램 중 가장 기대되는 것이 바로 한달 반 간의 홈스테이였다. 그런데 막상 홈스테이 기간이 다가오면서 기대감만큼 두려움도 밀려왔다. 전혀 모르는 동네에서, 말도 잘 못하는데 모르는 사람과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잘 살 수 있을까? 하지만 태국에 오기 전 한국에서 하던 걱정처럼 한 달이 지난 지금 그 걱정 역시 쓸데없는 걱정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 ★ 첫만남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집에 처음 도착했을 때 내 침대 위에 예쁘게 올려진 인형들을 보면서 ‘아 이 가족들도 나처럼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내가 오길 기다렸구나’ 하는 생각에 내 두려움이 누그러졌다. 처음 며칠간 이걸 먹을 수 있는지, 저녁 먹기 전에 씻는지 먹은 후에 씻는지, 모든 일 마다 괜챦냐고 물어보는 게 ‘가족’이 아니라 ‘손님’이 된 기분이었다. 하지만 요리를 도와주고 집안일을 같이 하고 같이 밥 먹고, 심지어 같이 씻으면서 부대끼다보니 어느새 이 가족에 녹아들고 있었다.

## ★ 가족소개

원래 나는 형제라곤 오빠 하나밖에 없었다. 그마저도 나이 차이가 좀 나서 같이 산 적이 별로 없다 보니 거의 혼자였는데, 여기서는 여동생이 둘이나 있고 남동생도 있다! 동생들뿐만 아니라 언니 오빠들도 더 생기고, 엄마가 한 명 더 생겼다.





**낫:** 나와 한 방에서 자고 매일 함께 학교를 같이 다니는 동생이다. 동생들이 둘이나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어른스럽지만, 친구들과 어울려 놀러 다니기를 좋아하고 할머니가 자기를 이해 못한다고 툭툭대는걸 보면 사춘기에 접어든 12살 소녀다. 배구를 무척 좋아해서 커서 배구선수가 되고 싶어하는데, 키가 너무 작다고 고민이란다. 우유를 많이 먹어야겠다.

**엄마:** 12살짜리 손녀가 있는 할머니지만, 실은 55세로 한국 엄마와 나이가 같다. 그래서 더더욱 빨리 엄마라고 느끼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우리엄마는 한 눈에 보아도 고생을 많이 한 흔적들이 여기저기 있다. 지금도 손자손녀들을 돌보고, 마을 일과 사원 일을 도맡아 하느라 힘드실 법도 한데 엄마 말대로 “임 짜이(Full heart)” 이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신다.

**쌍:** 노바디 춤을 잘 추고 자기 키만큼이나 점프를 잘하는 영락 없는 아홉살. 개구장이다.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선수가 되고 싶다고 말하며 부끄럽게 웃는 모습이 너무너무 귀여운 내 동생이다. 요즘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거의 매일 낫과 함께 배드민턴을 같이 친다. 키는 나보다 훨씬 작으면서도 어찌나 잘 치는지 애기라고 봐 줄 수 없다. ㅠㅠ

**팅팅:** 내가 온 첫날 ‘피 까올리(한국언니쯤 될까?)’ 라고 부르며 단순히 집에 온 외국인으로 신기해 하던 5살짜리 꼬마가 요즘은 “윤경 어언니” 라고 부르면서 달라붙어 떨어지질 않는다. 화장놀이를 무척 좋아해서 매일 베이비파우더로 얼굴을 하얗게 칠하고서는 예쁘냐고 수 십 번은 물어본다. 피펫(준희오빠)에게 반해서 고백하려 하지만 부끄러워서 못 하고 있다!!





## ★ 일상

-매일 아침 6시 20분쯤 엄마가 아침 준비하는 소리에 잠이 깬다. 새벽엔 역시 추워서 1분 정도 이불에서 꾸물대다 겨우 일어난다. 엄마가 요리하는 동안 난 설거지를 하고, 낮은 교복을 다린다. 와중에 텅텅은 아직도 꿈속을 헤매고 있어서 설거지가 끝나면 텅텅을 깨워야 한다.

엄마는 요리하면서도 딸내미 하나에 손자 손녀 셋을 챙기느라 잠시도 쉴 틈이 없다. 밥을 먹고 있으면, 피펫이 싸이파를 태우고 학교 가는게 보인다. 우리도 얼른 학교가야지!

자전거로 5분쯤 달려 학교에 도착한다. 아침청소를 하고, 조회가 끝나면 일과의 시작이다. 수업을 하기도 하고, 프로젝트 준비를 하고, 방과 후 활동을 하면 어느덧 4시. 집에 갈 시간이다.

낮은 배구부라 5시까지 배구를 한다. 난 먼저 집에 와서 짹이랑 배드민턴을 치고, 씻고 엄마와 같이 저녁을 준비하면, 낮이 선생님 차를 타고 집에 온다. 그러면 같이 저녁을 먹는데, 한 손으론 밥을 먹고 한 손으론 모기를 쫓아야 한다. 어떻게 일년 내내 모기가 있을 수가!

한국에는 여름에만 모기가 있다고 했더니 다들 싸바이싸바이 (편하네, 좋네) 라며 부러워했다.

밥을 다 먹으면 빨리 집에 들어와야 한다. 더 물리기 전에...

약간은 어두운 불빛 아래서 난 일기를 쓰고, 낮은 숙제를 한다. 엄마가 매트리스를 깔고 잘 준비를 하면 다들 쏘로록 누워서 TV를 보거나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낸다.

9시쯤 되면 내일을 위해 자야 한다! 이 동네 사람들은 정말 다들 일찍 자는 것 같다. '잘자요'라고 인사하고 쩡쪽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든다.





## ★ 레이그라통

-레이그라통 전날, 절에 가서 마을 아주머니들과 함께 '종오이'를 만들었다. 다들 뭐가 그리도 재미나신지 연신 깔깔거리며 신나게 만들었는데, 정말 어느 나라 건 아주머니들은 똑같다는 걸 새삼 느꼈다. 밤엔 가족들과 함께 그라통을 띄우러 갔다가, 축제를 구경했다. 여기저기서 폭죽이 터지고, 콤파이가 뜨는걸 보면서 일년간 레이그라통만 기다렸나? 싶었다.

당일에는 절에서 아이들이 공연도 하고, 마을 축제도 했는데, 짝은 복싱에서 이기고, 낮은 노래자랑에서 1등을 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즐기는 모습을 보니 즐거웠고, 나도 마을 사람이 되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게 행복했다. 난 언제 레이그라통을 다시 볼 수 있을까?



## 1달간의 홈스테이를 보내며...

외모가 닮은 것도 아니고, 심지어 한국말을 하는 것도 아닌데, 나는 이 집에서 한국 가족을 발견하고 있다. 때로는 과해서 서로를 상처 입히기도 하지만, 서로를 생각하고 아끼는 마음은 어느 가족이나 같은 것 같다. 어쨌건, 여기서 나는 기쁜 일, 화나는 일, 슬픈 일, 내 모든 일을 가족과 함께 나누고 있다.





감사합니다.

RoomAtt*i*

너무 잘 먹어서 살이 포동 포동해진 태국팀입니다.

라운아띠 4기 30명 친구들 모두~ 잘 지내고 있죠? 보고싶네요 ^^

P.S) 12월 더 재미있는 홈스테이 이야기 기대해주세요 : )